

영어어문교육 제9권 2호 2004년 겨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 윤 미

(서인천고등학교)

Seong, Yun-Mee(2004). Factors influencing English test score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2)*. 213-241.

As an attempt to characterize the English test section of CS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to get some suggestions, this study raised the research questions, as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English test scores in CSAT, and how big influences do they have?' It has been hypothesized that among main factors are the L1 competence, represented by the Korean test scores in CSAT, background knowledge or intelligence, represented by the "total" scores in CSAT, and the two types of L2 knowledge (vocabulary and grammar on one hand and prosody on the other hand), measured by the test devised specially for this study. The individual effect of the L2 vocabulary and grammar (one kind of L2 knowledge) was 70%, that of background knowledge or intelligence 61%, that of the L1 competence 50%, and that of the L2 prosody knowledge (the other kind of L2 knowledge) 32%. According to the stepwise regression, the whole effect of these four factors was 74%. The findings suggest that first, although CSAT is based on the top-down model of comprehension, the bottom-up model of learning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our English class. Also, since background knowledge or intelligence is the second most influential factor, the top-down model of learning that helps students learn to understand by activating their various schemata must also be very effective.

[English education/English learning/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영어교육/영어학습/대학수학능력시험)]

I. 서론

현행 중등영어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평가도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은 이러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시험은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영어로의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대수능 외국어영역은 국민공통기본교과(고1 공통영어) 수준에서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학생들의 영어로의 의사소통능력*과 이해와 적용 등의 언어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3. 28, 2003학년도 대수능 관련보도자료).

1993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학 진학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왔다. 이런 역할 때문에 대수능은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 왔으며, 이 시험의 문항 개발의 방향 및 문항 내용 그리고 시험 난이도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구 가운데에는 이 시험의 외국어영역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는데, 신명신(1999), 최인철(2000), 이재희(2000, 2001), 김미자(2001)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적으로 미시적 수준(micro level)에서 문항의 구성과 내용 또는 문항의 타당도, 변별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수준(macro level)에서 외국어영역의 성격을 규명해 보면서 현행 영어교수·학습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대수능의 외국어영역 점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외국어영역의 성격을 규명하고 영어교육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점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 요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네 가지 요소를 그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로 언어영역 점수로 대표되는 제1언어(L1)의 언어 능력과 둘째로 총점**으로 대표되는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셋째로 문법 및 어휘평가 등으로 대신 측정되는 영어의 (문

*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란 Cummins(Stem, 1983, p.352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와 CALP(Cognitive or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BICS는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종류의 언어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하고 CALP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인지적인 요구가 동반되는 학습 기술과 능력'으로 공식적인 학습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Garvie, 1990: pp. 7-8) 외국어영역의 출제원칙상 의사소통능력과 언어사고능력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Cummins의 구분에 따른 BICS에 해당하는 의미로, 언어사고능력을 CALP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 본 연구의 목적 상, '총점'이란 대수능의 영역별 점수의 합계에서 외국어영역 점수를 뺀 값을 지칭한다. 달리 설명이 없는 한, 앞으로 이 값은 대수능의 총점을 의미한다.

자)언어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영어지식을 대변하는 것으로는 역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상의 네 가지 변인들이 각각 얼마만큼 외국어영역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어느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요인이 전체적으로 외국어영역의 점수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변인들을 설정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로 대수능 외국어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요인 중 거시적 수준에서 외국어영역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요인만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인 L1의 언어 능력이 L1의 이해능력 전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수험자의 언어지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문법 및 어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문법 및 어휘 평가를 언어지식(Bernhardt & Kamil, 1995, Chun & Plass, 1997에서 재인용)이나, 언어능력(Alderson, 1984), 그리고 언어능 속도(Lee & Schallert, 1997)라는 이름으로 활용했던 선행연구들처럼 본 연구에서도 이들을 영어의 언어지식이라는 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대수능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토대로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의 여섯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이 시험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사고력 중심의 일종의 학력고사로서, 학생 선발에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 안내). 본 절에서는 본 연구자가 주요 요인으로 설정한 외국어영역, 언어영역, 총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첫째로, 외국어영역은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사용능력을 평가하고 고등학교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어교육 목표의 달성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평가 목표로 삼고 있다. 평가영역으로는 이해기능인 듣기와 읽기, 그리고 표현기능인 말하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출제문항은 총 50개로 음성언어기능을 측정하는 17개의 듣기 및 말하기 문항과 문자언어기능을 측정하는 33개의 읽기 및 쓰기 문항으로 구성된다. 말하기 문항이나 쓰기의 문항은 표현기능에 해당되는데, 지필 고사의 한계 때문에 간접 평가 형태로 이루어져 실제로 말하기 문항이면서도 청해 능력이 요구되거나 쓰기 문항이면서도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형태로 출제된다.

2003학년도 대수능에 출제된 외국어영역의 각 문항을 내용영역의 측면과 행동영역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내용영역의 경우는 언어사용능력의 측정이라는 목표 하에 의도한 대로 영역별 배분이 이루어져 있으나, 표현기능인 말하기와 쓰기는 간접평가의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 행동영역의 경우는, 답화 구성 또는 화용적 책략 사용 같은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보다는 이해에 바탕을 둔 언어사고능력 측정문항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은 영어의 청해(34%)와 독해(66%)를 바탕으로 영어로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함과 동시에 대학수학에 필요한 추론과 같은 언어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복합적 성격의 시험이라고 하겠다. 큰 개념의 틀 속에서 볼 때 대수능 외국어영역의 점수는 수험생의 언어사고능력을 포함하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사용 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겠다.

둘째로는, 대수능 외국어영역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L1의 언어 능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했던 언어영역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수능의 언어영역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성취한 모국어인 한국어의 듣기, 쓰기, 읽기 등의 다양한 언어능력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말해, 전체 60문항 가운데 듣기가 6문항, 쓰기가 6문항, 그리고 읽기가 48문항이 출제되는데, 읽기는 한국문학의 이해와 관한 문항과 비문학적 글의 이해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읽기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어휘력, 구문 파악 능력, 읽기 전략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감을 사실적으로 또는 추론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독서하는 능력을 높여야 하고, 나아가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언어영역 시험은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음성언어자료와 문자언어자료를 사실적·추론적·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언어사고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그 점수는 대체적으로 모국어인 한국어 언어능력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수능의 총점이란 원래 언어, 수리,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그리고 외국어영역의 원점수를 합한 것으로 400점 만점 중 수험자가 받은 점수의 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영역 점수를 포함하는 총점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은 전체집합과 부분집합의 관계를 살피는 것과 같아 설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400점 만점 중 외국어영역의 점수를 제외한 320점을 총점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대수능의 총점이 보여주는 것은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크게 수험자의 지적능력과 경험을 통해 습득한 배경지식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Davine(1986)은 독자들이 일생을 통해 얻은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배경지식이라 하였고, Jensen과 Hansen(1995)에 따르면 배경지식은 구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지식, 학문 분야에 관한 지식, 논제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했다. 대수능의 출제영역인 언어, 수리, 사회, 과학의 진전에 걸쳐 구축된 일반 지식은 수험생들이 이들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의 지적능력과 파

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해야하는 수단이다. 지적 능력과 활성화 된 배경지식에 적절한 문제 해결의 전략과 기술이 적용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대수능의 총점은 수험자의 지적능력 또는 배경지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2언어 습득 이론

제2언어(L2) 습득*은 이제까지 언어학, 심리학 그리고 L1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L2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에는 보다 거시적 수준에서 L2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L2 습득에 있어 L1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왔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L1의 독해능력이 L2의 읽기 과정에 전이가 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L1의 독해능력이 L2의 독해능력으로의 전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증의 여지가 다소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L1의 언어능력이 L2의 습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enedetto, 1984; Block, 1986; Knight, Pardon & Waxman, 1985; Sarig, 1987)

L2의 습득에는 L1 뿐만 아니라 L2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도 영향을 미친다. 이 명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여기서 L2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나는 것이 문제이다. 한 언어에 대한 언어능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Hymes(1972)는

* 제2언어 습득(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연구분야에서 '습득'이라는 용어는 접촉을 통해 제2언어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pick up) 개념을 지칭하고, '학습'이라는 용어는 제2언어의 의식적인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llis(1985: p. 6)는 이러한 구분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2언어의 습득'은 '자연적인 환경이나 교육이 행해지는 환경 모두에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학습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Ellis의 주장에 의거하여 '제2언어 습득'을 '학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미시적 수준에서 공인된 표준화 시험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독해 및 청해 문항의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AT(Scholastic Aptitude Test)의 경우, 주어진 텍스트 내에서의 요지에 관한 정보의 위치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경우, 문장이나 담화 요소들이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edle & Kostin, 1991, 1993). 또 다른 형태의 성취도 평가에서는 문항의 구조, 가독성(readability), 의미 내용, 인지적 욕구나 지식적 욕구 등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cheuneman & Gerritz, 1991). 청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TOEFL의 응답 선택지 길이가 짧아지면 문제가 쉽다고 여겨져 읽기의 기술이 청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Henning 1991), 발화된 문장의 유형, 부정형의 존재 여부, 추론의 필요성, 발화자의 역할 등이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Nissan, DeVincenzi & Tang, 1996). 독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이나 담화 요소들이 청해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험자들이 단락 내에서 제공되는 적절한 읽기 정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eedle & Kostin, 1996).

언어의 규칙과 체계에 대한 지식으로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과 언어사용에서의 사회적인 규칙에 대한 지식인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구별하였고,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능력을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다시 세분하기도 하였다.

언어에 대한 지식을 수치화하려는 노력으로 많은 평가 도구가 개발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진 TOEFL이나 TOEIC, 그리고 TEPS 같은 타당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도구들에 의해 측정된 수치 즉 점수가 수험자의 대상언어인 영어에 대한 능숙도를 말해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도구들은 공통적으로 문법과 어휘 그리고 청해와 독해 등을 구성요소로 갖고 있다.

독해능력이나 청해능력과 차별화된 언어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추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기존의 평가도구들은 공통적으로 문자언어지식인 문법적 구조에 대한 지식과 어휘에 대한 지식을 그 주요 요소로 삼고 있다(Lee & Schallert, 1997). 게다가, 많은 연구자들이 L2 이해과정에 어휘나 문법지식이 각각 개별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arrell, 1988; Grabe, 1991; Schulz, 1983; Yorio, 1971).

문자언어능력 이외에 L2의 음성언어지식 또한 L2의 습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어의 음성언어지식은 음소체계와 운율체제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운율체계는 크게 강세, 리듬, 억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영어의 운율체계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어의 발화에서는 강세를 받는 음절과 그렇지 못한 음절이 교차하면서 영어 고유의 리듬을 형성하게 되는데, 특정한 음절만이 강세를 받고 나머지 음절은 그 수와 상관없이 강세 음절에 의해 형성되는 리듬에 맞춰지게 된다. 이러한 강세 조정(stress-timed) 언어인 영어의 습득은 음절조정(syllable-timed) 언어인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준다. 억양은 문장의 발화를 구성하는 개별음의 높낮이(pitch)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선율(melody)을 말한다. 억양은 다양한 억양조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달라지게 할 수도 있어 영어의 문법 체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기도 하며 또한 발화의 내용에 대해 놀람, 불신, 풍자 등의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조롭고 완만한 억양조를 특징으로 갖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다양한 종류의 억양조를 갖는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이현우, 1998).

Selkirk(1984, p. 144)는 “발화의 가능한 리듬 구조는 발화의 억양의 특성에 의해 제한되거나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이 주장은 영어의 음운에 있어서 억양이 가장 으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억양에 의해 리듬이 결정되고 리듬에 의해 구 강세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영어의 억양을 습득하는 것이 영어의 음운에서 가장 중요함을 가리킨다. 그리고 Madsen(임병민역, 1993에서 재인용)은 음성언어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측정할 때 여러 요소를 함께 측정하는 것보다는 리듬이나 강세, 억양의 한두

가지 요소만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에 의거하여 한국어와 상당히 다른 운율체계를 갖는 L2로서의 영어의 운율체계에 대한 지식은 L2의 이해과정(특히 청해)에 긍정적인 전이를 보일 것일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억양에 대한 지식이 음성영어지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배경지식이나 지적 능력 또한 L2 습득(특히, 이해 기능 신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이 있다(Makham & Latham, 1987; Mueller, 1980). 일찍이 Immanuel Kant(1963)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생각은 개인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에 연관되어질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Anderson 외(1977)는 이 개념을 재인 급했는데, 모든 이해의 활동은 개인의 세상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했다. 언어의 이해에서 배경지식의 역할을 하나의 이론으로 공식화한 것이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인데, 청해나 독해와 같은 이해의 과정에 배경지식이 활성화되어 이해를 돕는다는 이 스키마 이론이 나온 후, 배경지식과 청해 및 독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유도된 배경지식은 이해에 있어서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 언어의 숙달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Hudson, 1982), 배경지식 혹은 사전지식이 이해를 특히, 추론적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며(Pearson, Hansen & Gordon, 1979, 정길정과 연준홍(편), 1996에서 재인용), 청해의 경우에도 독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되어 있다(Makham & Latham, 1987; Mueller, 1980).

이러한 연구와 함께, L2 습득(특히, 독해)시 학습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L2 언어 지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L1 언어 구사 능력의 문제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Chun & Plass, 1997)도 있어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정수준의 L2 언어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한해 L1의 언어 능력이 L2의 습득에 전이된다는 가설(문지방 가설: Threshold Hypothesis)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였다(Clarke, 1979, 1980; Cummins, 1979; Cziiko, 1980; Laufer & Sim, 1985; Lee & Schallert, 1997; 송미경, 2001). 이러한 L2 습득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영어의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인도 대수능 외국어 영역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III.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대수능의 외국어영역 점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외국어영역의 성격을 규명하고 영어교육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에 대수능 외국어영역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첫째, 언어영역 점수로 대표되는 L1의 언어 능력과 둘째, 총점으로 대표되는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셋째, 문법 및 어휘평가 등으로 대신 측정되는 영어의 (문자)언어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영어지식을 대변하는 것으로는 억

양을 설정하였다. 먼저, 이상의 네 가지 변인들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 변인들이 각각 얼마만큼 외국어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를 알아보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요인이 총체적으로 외국어영역의 점수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실험 참가자

실험의 참가자는 2002년 11월 6일 현재 I시의 세 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86명이다. 일반계 고교 1개교의 6개 반 학생들 272명과 또 다른 2개의 일반계 고교에서 외국어영역 등급상 1, 2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30명을 추가로 참여시킨 후 예능계열을 지원한 16명을 제외하였다. 2002학년도부터는 대수능에서 총점 표기를 폐지하고 영역별 점수만 표시해 모집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하는 Stanine*안을 확정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1등급 해당자는 4%이고, 2등급 7%로 점점 수치가 늘어났다 5등급 20%를 기점으로 다시 수치가 줄어 9등급 해당자가 전체의 49% 된다. 상대적으로 표본이 작은 집단인 1, 2등급의 해당자와 8, 9등급 해당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에 너무 적어 등급별 비교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 특히 1, 2등급 해당자들은 영어능력 면에서 우수 그룹으로 실험에 의미 있는 결과를 줄 수 있는 반면 8, 9등급 해당자들은 실제로 도시의 보통 일반계고교에서 대상자를 찾기 힘들뿐더러 성취 점수가 매우 낮아 의미 있는 결과를 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 2등급 해당자만을 Stanine상의 비율과는 다르게 추가로 더 참여시켰다.

참가자 286명의 외국어영역 점수는 최소값이 18점이고 최고값은 80이며 평균은 53.90이고 표준편차는 16.56이다. 2003학년도 대수능 전체 수험자의 외국어영역 평균은 43.1이었고, 상위 50% 해당자의 평균이 57.0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사실상 대수능 전체 응시자의 상위 50%의 평균을 조금 밑도는 평균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실험 참가자들(표1의 실험대상자I) 모두의 대수능 각 영역별 점수가 실험자들의 동의서를 얻어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수집되었고, 사전에 연구자가 1개 반을 대상으로 사전시험을 통해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법 및 어휘시험(영어의 문법 및 어휘지식 평가지는 부록I 참조)을 치른 평가 결과 역시 수합되었다. 그리고 음성언어지식(역양) 측정을 위하여 286명중 일부 학생인 156명의 녹음을 하였고, 판별과정에서 역양 판독이 불가능한 학생 7명을 제외한 총 149명(표1의 실험대상자II)의 자료도 수합되었다. 외국어영역 등급별 실험대상자의 구성은 표1과 같다.

* Stanine이란 "Standard nine"의 약어로 9등급으로 한 표준점수를 말하는데,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이 5,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 상의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2002학년도 대수능의 9등급 제공 및 소수점·총점 폐지).

표 1
실험대상자의 구성

등급	대수능전체응시자 중의 성취도비율(누계)	실험대상자I	실험대상자II
1등급	4(4)%	26	20
2등급	7(11)%	39	29
3등급	12(23)%	53	34
4등급	17(40)%	48	30
5등급	20(60)%	58	20
6등급	17(77)%	41	13
7등급	12(89)%	16	3
8등급	7(96)%	5	0
9등급	4(100)%	0	0
합계	100%	286	149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대수능 언어영역 점수, 총점, 외국어영역 점수, 영어 언어지식 시험 점수와 음성영어지식(억양)의 평가결과이다. 이미 표준화된 판별도구인 대수능 언어영역의 원점수는 L1의 언어 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배경지식 및 지적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대수능의 총점은 본 연구자가 실험대상자(표1 참조)로부터 얻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의 영역별 원점수를 합산(총 320만점)하여 산출하였으며, L2의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수능 외국어영역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영어의 언어지식 시험 점수를 대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법 및 어휘 시험은 기존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인 G-TELP(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일부를 활용 편집하고 일부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G-TELP는 국내에 소개된 표준화된 여타의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중 초중고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어능력 시험 평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는 G-TELP의 레벨2에서 레벨5에 이르는 기출 문항 중 문법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25개의 문법문항을 선별하였고, 어휘의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10개 선정하고, 나머지 15개는 수능어휘를 기준으로 Collins Cobuild Dictionary를 참조하여 G-TELP 문항과 같은 유형으로 직접 제작하였다. 총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50분간 치르게 하였다.

문법 및 어휘평가의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편집 및 제작한 도구이므로 타당도 검증이 필요했다. 따라서 본 시험을 치르기 전, 1개의 임의의 반을 선정 알파값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사용하였다. 임의로 선정한 반의 문법 및 어휘 시험의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α)은 .765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수정 없이 그대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문법 및

어휘지식에 관한 사전시험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문법 및 어휘의 평균이 25점 만점에 각각 12.08과 14.52이다.

음성영어지식(억양)의 평가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인사말,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 단문, 복문, 그리고 간단한 담화로 이루어진 스크립트를 억양을 넣어 읽게 하였다(억양 평가지는 부록II 참조). 음성영어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발음, 강세, 억양 등이 있는데, 비교적 학생들이 널리 인지하고 있고 그 차이의 판별이 용이해 객관화에 유리한 억양을 음성영어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스크립트의 내용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된 적이 없으며, 학생들은 평소의 실력대로 발음했고, 학교내의 조용한 장소에서 녹음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카세트 테이프 110분 정도의 분량으로, 1시 소재의 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중인 원어민 교수 1명에 의해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1번부터 8번까지 한 문장으로 구성된 항목은 수준에 따라 각 1점에서 5점이 부여되었고 여섯 문장으로 구성된 담화인 9번은 수준에 따라 각 2점에서 10점이 부여되었다.

IV. 실험 결과

1. L1의 언어능력이 미치는 영향

본 실험에 사용된 언어영역 점수는 2003학년도 대수능 응시자 286명의 채점 결과로부터 얻은 자료이다. 실험대상자의 언어영역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총 286명 중 최하점은 34점이고 최상점은 112점이며, 평균은 81.971 그리고 표준편차는 16.645이다. 2003학년도 대수능 응시자 전체의 언어영역점수 평균인 67.8점과 상위 50% 해당자의 언어영역점수 평균인 83.2점(2003학년도 대수능 채점결과, 2002. 12. 2.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비교해 보면, 실험대상자들의 평균이 대수능 전체응시자의 상위 50% 내의 구성원들의 평균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대상자들이 모두 도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어서 사실상 7, 8, 9등급 해당자가 거의 없다는 점과, 예·체능계 학생들의 자료는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험대상자 선정시 외국어영역 등급별로 고른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의 재직교 이외의 학교에서 상위 1, 2등급 학생들만을 추가로 합류시킨 점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언어영역 점수는 L1의 언어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이 L2의 언어 능력으로 이해되는 외국어영역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언어영역 점수와 외국어영역 점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언어영역의 점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외국어영역 점수와는 .741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L1의 언어 능력이 뛰어나수록 L2의 언어 능력도 뛰어나다는 설명이 된다.

이번에는 외국어영어영역등급(이하 외국어 등급)을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하여 언어영역의 점수와 외국어영역 점수와와의 상관관계는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외국어등급별 언어영역 점수와 외국어영역 점수의 상관관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Pearson상관계수	.200	.174	.314	.259	.433	.383	-.217	-.469
유의확률 (양쪽)	.327	.288	.022	.075	.001	.013	.419	.425
N	26	39	53	48	58	41	16	5

전체 실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는 달리 각 등급별 상관관계는 미미하거나 1등급, 2등급, 4등급 그리고 7, 8등급의 경우는 유의수준을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따라서 외국어등급 내에서의 언어영역 점수와 외국어영역 점수와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은 L1 언어 능력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L1 언어능력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R	결정계수(R ²)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1	.760	.578	.576	10.764

Source	자유도 (df)	제곱합 (SS)	평균제곱합 (MS)	F	유의확률 (p)
회귀 (Regression)	1	44837.505	44837.505	386.996	.000
오차 (Error)	283	32788.507	115.860		
합계 (Total)	284	77626.012			

Var.	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p)
상수	-8.557	3.234		-2.646	.009
언어영역	.760	.039	.760	19.672	.000

표3에서 R²값은 결정계수로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값은 항상 0과 1사이의 수가되는데, 1에 가까우면 선형회귀모형이 관측결과를 잘 설명하여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영역 점수에 대한 언어영역의 점수의 영향력에서 결정계수는 .576이다. 유의수준 .05하에서 F값이 $F_{0.05}(1, 284) \approx 3.84$ 보다 크면 회귀모형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데, 표3 상의 F값은 386.996으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수의 계수 추정에서 변수가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통계치인 t값은 유의수준 .05하에서 $t_{0.05}(284) \approx 1.96$ 보다 크면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t값이 -2.646과 19.672로 변수도 유의하다. 따라서 언어영역은 외국어영역의 약 58%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지적능력 또는 배경지식이 미치는 영향

전체 실험대상자 286명의 400점 만점시의 총점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이 106.0, 최대값이 386.3이고 평균은 254.449 그리고 표준편차는 61.931이다. 실험 대상자의 총점의 평균값과 대수능 수험자 전체집단의 총점의 평균값의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성적표상에 총점을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2003학년도 대수능 채점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도 총점에 대한 평균을 발표하지 않고 다만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한 등급구분 점수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설명했듯이 400점 만점에서 외국어영역 점수를 뺀 나머지 영역의 합계 점수(320점 만점)를 총점으로 사용했다.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으로 설명되는 총점의 수치와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1에서 .781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총점이 높을수록 외국어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지적능력이 높을수록 외국어 청해 및 독해를 잘 한다는 설명이 된다.

한편, 외국어영역의 각각의 등급별로 총점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4와 같다.

표 4
외국어등급별 총점과 외국어영역 점수의 상관관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Pearson상관계수	.284	.448	.518	.521	.609	.579	.210	-.293
유의확률 (양쪽)	.159	.004	.000	.000	.000	.000	.436	.632
N	26	39	53	48	58	41	16	5

각 등급별 외국어영역의 점수와 총점의 상관관계는 1, 7, 8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05이하로 모두 유의미했다.

다음으로는 지적능력 또는 배경지식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결과는 표5와 같다.

표 5
지적능력 또는 배경지식이 외국어영역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R	결정계수(R ²)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1	.781	.610	.609	10.352

Source	자유도 (df)	제곱합 (SS)	평균제곱합 (MS)	F	유의확률 (p)
회귀(Regression)	1	47701.601	47701.601	445.090	.000
오차(Error)	284	30437.106	107.173		
합계(Total)	285	78138.707			

Var.	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p)
상수	-1.66E-02	2.628		-.006	.995
총점	.269	.013	.781	21.097	.000

외국어영역 점수에 대한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의 영향력에서 결정계수는 .609이다. 유의수준 .05하에서 F값이 445.090으로 회귀모형이 유의하나, t값은 상수항의 경우 유의확률 .995 하에서 -.006으로 유의하지 못하다. 그런데 상수항을 제거하고 분석을 하게되면 R²값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상수항을 추가해서 측정하였다. 총점의 t값은 21.097로 유의하다. 따라서 총점은 외국어영역의 약 61%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영어의 언어지식이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문법과 어휘를 언어지식의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두 영역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법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문법은 총 25점 중 최저 4점에서 최고 24점, 평균이 13.61점 그리고 표준편차가 4.24이었다. 문법점수와 외국어 영역 점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유의수준 .01에서 외국어영역의 점수와 .713, 외국어등급과 -.691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문법 실력이 떨어날수록 외국어영역에서 상위 등급을 받고, 외국어 성적도 우수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어휘력의 경우는 총 25점 중 최저 2점에서 최고 25점으로 평균이 16.42점 그리고 표준편차가 5.22였다. 어휘력과 외국어등급의 상관관계를 보면 유의수준 .01에서 .826이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어휘의 경우도 문법과 마찬가지로 어휘 실력이 떨어날수록 외국어영역 성적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언어지식을 한 요인으로 설정한 바, 문법과 어휘를 합산하여 구한 수치와 외국어영역의 점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문법과 어휘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달라 두 점수를 그냥 산술적으로 합쳐서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문법과 어휘의 t점수를 구해서 그에 따라 두 점수를 합산한 것을 영어의 언어지식 점수로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정확하다. 다음은 문법과 어휘를 표준화한 방식이다.

$$\text{문법} + \text{어휘} = \frac{\text{문법} - \text{문법의평균}}{\text{문법의표준편차}} + \frac{\text{어휘} - \text{어휘의평균}}{\text{어휘의표준편차}} = \frac{\text{문법} - 13.61}{4.24} + \frac{\text{어휘} - 16.42}{5.22}$$

이렇게 하여 산출한 문법과 어휘, 즉 영어의 언어지식의 평균은 0이 된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문법과 어휘의 총점인 영어의 언어지식 점수와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문법과 어휘를 개별적 요소로 비교했을 때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영어의 언어지식의 점수는 유의수준 .01에서 외국어 영역의 점수와 .839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영어의 언어지식이 떨어날수록 외국어영역 성적도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외국어등급에 따른 영어의 언어지식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표6과 같다.

표 6
외국어등급별 영어의 언어지식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Pearson상관계수	.415	.487	.536	.526	.287	.353	.333	-.232
유의확률 (양쪽)	.035	.002	.000	.000	.029	.024	.207	.709
N	26	39	53	48	58	41	16	5

각 등급별 외국어영역의 점수와 영어의 언어지식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7, 8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수준 .05이하로 모두 유의미했다. 따라서 외국어등급 내에서도 영어의 언어지식과 외국어영역의 점수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영어의 언어지식이 높을수록 외국어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언어지식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의 언어지식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외국어영역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정계수는 .703이고, F값은 676.717로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5하에서 유의하고, t값은 101.074와 26.014로 변수도 유의하다. 따라서 영어의 언어지식은 외국어 영역의 약 70%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영어의 언어지식이 외국어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표는 다음 표7과 같다.

표 7
 영어의 언어지식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R	결정계수(R ²)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1	.839	.704	.703	9.019

Source	자유도 (df)	제곱합 (SS)	평균제곱합 (MS)	F	유의확률 (p)
회귀 (Regression)	1	55039.918	55039.918	676.717	.000
오차 (Error)	284	23098.789	81.334		
합계 (Total)	285	78138.707			

Var.	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p)
상수	53.900	.533		101.074	.000
언어지식	7.580	.291	.839	26.014	.000

4. 음성영어지식이 미치는 영향

음성영어지식을 나타낸다고 가정된 억양은 총 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단일 문장에 대한 억양측정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5단계로 설정하였고, 9번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 형태로 2점에서 10점까지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10점에서 50점에 이르는 범위의 점수가 가능하였고, 실제 억양측정치의 기술통계량은 최소값 16, 최대값 50 그리고 평균 41.15이다.

먼저, 억양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유의수준 .01에서 억양과 외국어영역의 상관계수는 .567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억양이 좋은 학생일수록 외국어영역 점수도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어등급별로 억양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8에서 보듯이 상관계수만을 따지면 7, 8등급으로 갈수록 억양과 외국어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듯 보이지만, 유의확률이 전부 .05이상이라 이 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억양의 경우는 실험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등급 내에서 억양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이렇다할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8
외국어등급별 음성영어지식과 외국어영역 점수의 상관관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Pearson상관계수	-.046	-.106	-.310	.281	.427	.492	.945	
유의확률 (양쪽)	.848	.585	.075	.132	.060	.104	.212	
N	26	39	53	48	58	41	16	5

음성영어지식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통계처리과정 중 수집 자료에서 이상치(high leverage point)가 있어 이를 제거한 후 다시 분석하였다.

표 9
음성영어지식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모형	R	결정계수(R ²)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1	.567	.322	.317	12.409	
Source	자유도 (df)	제곱합 (SS)	평균제곱합 (MS)	F	유의확률 (p)
회귀 (Regression)	1	10738.127	10738.127	69.734	.000
오차 (Error)	147	22636.122	153.987		
합계 (Total)	148	33374.248			
Var.	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p)
상수	-1.042	7.321		-.142	.887
억양	1.471	.176	.567	8.351	.000

외국어영역점수에 대한 음성영어능력의 영향력에서 결정계수는 .317이다. 유의수준 .05 하에서 F값이 69.734로 회귀모형이 유의미하다. 그러나 t값은 억양의 경우 유의수준 .05 하에서 8.351로 유의하지만, 상수항의 경우 유의수준이 .887로 .05를 넘어 -.142의 값이 유의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상수항을 제거하게 되면,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²)값이 .959가되어, 억양이 외국어영역의 점수를 약 96% 설명한다는 억측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유의수준에는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상수항을 포함하여 통계치를 얻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음성영어지식은 외국어영역의 약 32%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개별변인들의 영향력의 정도 및 총체적 영향력 정도

이제까지 언어영역 점수, 총점, 영어의 언어지식, 그리고 음성언어지식이 개별적으로 외국어영역 점수와 갖는 상관관계 및 외국어영역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들 변인들과 외국어영역과의 상관관계와 이 변인들이 외국어영역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뽑으면 표10과 같다.

표 10
 각 변인들이 외국어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

	언어영역 점수 (L1언어능력)	총점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영어의 언어지식	음성영어 능력
상관관계	.741**	.781**	.839**	.567**
영향력	58%	61%	70%	32%

** 상관계수는 .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언어영역 점수나 총점, 영어의 언어지식 모두 외국어영역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성영어지식 역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향력의 경우도 영어의 언어지식의 경우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그리고 L1 언어 능력도 꽤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음성영어지식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영어의 언어지식이 외국어영역 점수에 가장 영향력이 높으며,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L1 언어 능력, 음성영어지식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는 영향력이 큰 것부터 단계적으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영향력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변인들이 총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 11
 외국어영역 점수에 단계적으로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회귀 분석

모형	R	결정계수(R ²)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 ²)	추정값의 표준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1	.804 ^a	.646	.644	9.019
2	.842 ^b	.709	.705	8.158
3	.846 ^c	.716	.710	8.082
4	.862 ^d	.743	.736	7.719

- a. 예측값 : (상수), 영어의 언어지식
- b. 예측값 : (상수), 영어의 언어지식, 총점
- c. 예측값 : (상수), 영어의 언어지식, 총점, 언어영역점수
- d. 예측값 : (상수), 영어의 언어지식, 총점, 언어영역점수, 음성언어능력

모형	자유도 (df)	제곱합 (SS)	평균제곱합 (MS)	F	유의확률 (p)
1 회귀(Regression)	1	21575.294	21575.294	268.801	.000 ^a
오차(Error)	147	11798.954	80.265		
합계(Total)	148	33374.248			
2 회귀(Regression)	2	23658.341	11829.171	177.756	.000 ^b
오차(Error)	146	9715.907	66.547		
합계(Total)	148	33374.248			
3 회귀(Regression)	3	23902.705	7967.568	121.976	.000 ^c
오차(Error)	145	9471.544	65.321		
합계(Total)	148	33374.248			
4 회귀(Regression)	4	24795.355	6198.839		.000 ^d
오차(Error)	144	8578.894	59.576	104.050	
합계(Total)	148	33374.248			

모형	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Beta)	t
1 (상수)	55.606	.771		72.087
영어지식	6.957	.424	.804	16.395
2 (상수)	32.197	4.234		7.589
영어지식	4.481	.588	.518	7.626
총점	.117	.021	.380	5.595
3 (상수)	28.658	4.584		6.252
영어지식	4.771	.601	.551	7.937
총점	5.850E-02	.037	.189	1.588
언어점수	.183	.095	.187	1.934
4 (상수)	11.723	6.189		1.894
영어지식	4.133	.579	.478	6.921
총점	6.118E-02	.035	.198	1.739
언어점수	.142	.091	.146	1.563
음성언어능력	.492	.127	.190	3.871

표11에서 보듯이 영어의 언어지식만으로 외국어영역 점수를 약 64% 설명할 수 있다. 원래 영어의 언어지식만으로 회귀분석을 했을 때는 결정계수가 70%이었는데, 단계적 회귀분석에 64%가 나온 이유는 음성영어지식에서의 결측치인 것을 제외하고 148명의 자료만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영어의 언어지식과 총점 즉,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과 합쳐 저서는 외국어영역의 점수를 70.5% 설명할 수 있고, 영어의 언어지식,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L1의 언어 능력이 합쳐져 외국어 영역의 점수를 약 71% 설명할 수 있으며, 영어의 언어지식,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L1의 언어 능력, 음성언어능력이 모두 합쳐 총체적으로 외국어 영역의 점수의 약 74%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V. 토론

본 연구는 대수능 외국어영역 점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며, 각각의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네 가지 변인을 설정하였다. 첫째가 언어영역 점수로 대표되는 모국어 언어능력이었고, 둘째가 총점으로 대표되는 지적능력과 배경지식이었으며, 셋째가 영어의 문법 및 어휘시험으로 대신한 영어의 언어지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영어지식으로 대표되는 억양측정치였다.

첫 번째 변인인 언어영역 점수는 외국어영역의 점수와 .741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는 L1 언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L2 언어 능력도 뛰어나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영역 점수의 등급별로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각 등급별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등급별 상관관계를 보일 만큼의 실험대상자가 많지 않았고, 등급간 외국어영역 점수의 폭이 80점 만점 중 9점 미만으로 매우 작아 한 등급 내에서 언어영역 점수의 변화에 따른 외국어영역의 점수의 일정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 L1의 언어 능력으로 대변되는 언어영역 점수는 외국어영역의 점수에 58%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해 볼 때 L1 언어 능력은 외국어영역의 점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L1 언어 능력의 향상이 L2 언어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며 곧 외국어영역 점수로 연결됨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둘째 변인인 총점은 외국어영역의 점수와 .781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영역의 등급별로 총점과 외국어영역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에서도 1, 7, 8등급을 제외하고 5이상의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7, 8등급의 경우는 대상자의 표본이 너무 작아 등급별 상관관계 수치를 통계화하는 것이 의미 없다. 1등급의 경우는 나머지 등급보다 표본이 작기는 하지만, 실제 외국어영역 1등급을 받는 학생들 내에서는 총점이 높다고 외국어영역 점수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나머지 2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상관관계가 대체로 증가했는데, 이는 외국어영역 6등급보다 상위등급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외국어영역 점수가 높으며, 이런 현상은 하위의 등급에서 현저하다는 것이다. 즉, 지적능력이 뛰어날수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어영역의 점수는 높다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으로 대변되는 총점은 외국어영역의 점수에 약 61%라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어영역에서의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지적능력을 갖추어야하고, 배경지식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변인은 문법과 어휘시험으로 대신한 영어의 언어지식이다. 문법의 경우는 .713, 그리고 어휘의 경우는 .826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외국어영역 점수와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법과 어휘 둘 다 외국어영역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특

하 어휘의 경우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법과 어휘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합산하고, 이 값을 영어의 언어지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화하였다. 영어의 언어지식과 외국어영역의 점수와의 .839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영어의 언어지식의 영향력 또한 70%로 상당히 높다. 외국어영역의 등급별로 영어의 언어지식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나뉠대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관계수가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 내에서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영어의 언어지식은 외국어능력의 기본이다. 언어지식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외국어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증거들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넷째 변인은 음성영어지식이다. 역량을 측정하여 실험 대상자의 음성영어지식으로 일반화하였는데, 음성영어지식과 외국어영역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567이었고, 외국어영역 점수에 대한 음성영어지식의 영향력은 32%이었다.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은 간접평가 형태를 취하고 있어, 수험자의 음성언어능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자는 음성언어지식도 문자언어지식 못지 않게 언어구사능력의 중요 요소이므로, 외국어영역의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음성언어지식은 문자언어지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음성영어지식의 향상은 외국어영역 점수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언어영역 점수로 대변되는 L1 언어능력, 총점으로 대변되는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영어의 언어지식, 그리고 영어의 음성언어지식은 모두 한결같이 외국어영역의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본 연구자가 설정한 네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어영역 점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가 영어의 언어지식, 둘째가 지적능력 및 배경지식, 셋째가 L1의 언어 능력 그리고 넷째가 음성영어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수능 외국어영역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에서 영어의 어휘력과 문법지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 요소를 강화하는 상황식(Bottom-up) 모델*에 의한 영어교수·학습법

* 언어의 이해과정에 대한 접근법으로 상황식(Top-down) 모델, 하향식(Bottom-up) 모델 그리고 상호작용식(Interactive) 모델을 들 수 있다. 상황식 모델은 Gough(1972)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독자가 문자에서, 글자, 구, 절, 문장의 단계로 일련의 해독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를 할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모델은 주어진 텍스트에 기초하여(text-based)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기초한 과정(data-driven process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Urquhart & Weir, 1998). 하향식 모델은 보다 상위의 인지체계가 새롭게 들어온 정보를 위치에 맞게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과정을 체계화한 것으로 이 모델에서는 독자가 주체로 참여를 하여(reader-driven) 정보를 처리할 뿐 아니라 독자의 사전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Urquhart & Weir, 1998). 그리고 상호작용식 모델은 상황식

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은 빠른 시간 내에 단락의 요지 및 주제를 파악하는 하향식 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기초 어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향식(Top-down) 활동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엉뚱한 추측만을 낳을 수 있다. 기존의 단어와 의미라는 일대일 대응식의 어휘 학습이 아닌 주어진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문맥을 통한 유추를 하도록 유도하는 진일보한 방식의 어휘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법은 기본사항에 대한 체계적 지도가 필요하다. 대수능에서 문법의 출제 비율이 극히 낮아 요즘 고등학교에서 문법교육은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언어를 노출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에 학습자는 많은 용례를 통해 언어의 규칙을 귀납적 방식으로 유추해가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한국의 학생들의 상황에서는 문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의 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연역적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언어 구조의 이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상 언어를 통해 얻게 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도구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문법 교육의 강조가 문법을 언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자 하는 과거의 교수법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은 의사소통능력(BICS)을 측정하고 이해와 적용 등의 언어 사고력(CALP)을 측정하도록 출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영역의 점수가 배경지식이나 지적 능력으로 파악되는 총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욱 비중이 실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어영역의 성격 규정은 이 영역의 효과적인 지도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제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즉, 스키마를 활용한 하향식 모델에 의거하여) 말과 글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의식적인 연습 활동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강조점은 음성언어 교육의 중요성이다. 문자 언어교육은 대수능에서 독해에 차지하는 커다란 비율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음성 언어교육은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듣기 평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통영어 수준의 1학년이나, 영어I 수준의 2학년의 경우도,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어구의 이해 및 활용만을 강조하고 있어, 음소나 강세, 리듬, 억양 등 음성 언어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음성 언어의 이해가 언어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며, 언어 전반에 관한 이해는 정확한 청해와 독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음성 언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과 하향식 모델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이 모델에서는 독자를 의미파악의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그 역할을 강조하였고, 또한 텍스트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텍스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다.

VI. 결론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의 성격을 거시적 수준에서 규정하고자 이 영역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본 연구자가 설정했던 네 가지 요인들은 L2의 언어지식, 지적능력 또는 배경지식, L1의 언어능력 그리고 음성영어지식의 순으로 외국어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총체적으로 74%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수능의 외국어영역은 영어의 문법과 어휘 등 언어전반에 관한 지식에 기초한 상태에서 다양한 배경지식과 지적능력을 바탕으로 L2에 의한 언어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영어교육에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상향식 모형을 토대로 언어의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주제에 관한 경험을 쌓고 이를 배경지식으로 내면화하며,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의식적인 연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향식 학습모형의 중요성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향식과 하향식 이해의 능력을 어느 정도 모두 갖추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L2를 습득할 기회를 갖출 때에 한해 대수능 외국어영역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김미자. (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과 고등학교 공통영어 교과서의 문항유형 비교. *영어교육*, 56(4), 349-371.
- 신명신. (1999).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지문의 구문 패턴 분석. *영어교육*, 54(4), 309-326.
- 이재희. (2000). 읽기 문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수능시험 언어·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 연구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희. (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의 총체적 개선방안. *영어교육*, 56(2), 333-364.
- 이현우. (1998). 영어 운용의 교수·학습법 개발에 관하여. *인하교육연구 논문집*, 4, 1-34.
- 임병민역. (1993). (Madsen 저). *영어교육평가기법*. 서울: 한국문화사.
- 정길정과 연준홍(편). (1996). *외국어 읽기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최인철. (2000). 외국어 영역 문항의 개선방안. *수능시험 언어·외국어 영역 문제은행 구축 연구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보도자료-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등급 제공 및 소수점·총점 폐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영역별 학습 방법 안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보도자료-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 Alderson, C. J. (1984).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A reading problem or a language problem? In A. H. Urquhart & C. J. Alderson (Eds.),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pp. 122-135). New York: Longman.
- Anderson, R. C., Goetz, E. T., Reynolds, R. E. & Schallert, D. L. (1977). Frameworks for comprehending discours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4, 367-382.
- Benedetto, R. (1984). *A psycholinguistic investigation of the top-level organization strategies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reading: Five case stud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Block, E. (1986).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readers. *TESOL Quarterly*, 20, 463-494.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arrell, P. L. (1988). Interactive text processing: Implications for ESL/second language reading classrooms. In P. L. Carrell, J. Devine & D. E. Eskey (Eds.), *Interac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reading* (pp. 239-2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n, D. M. & Plass, J. L. (1997). Research on text comprehension in multimedia environments. *Language Learning*, 1(1), 60-81.
- Clarke, M. A. (1979). Reading in Spanish and English: Evidence from adult ESL students. *Language Learning*, 29(1), 121-150.
- Cummins, J. (1979). Linguistic interdependence and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 222-251.
- Cziko, G. A. (1978). Differences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reading: The use of syntactic, semantic, and discourse constraint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4, 473-489.
- Cziko, G. A. (1980). Language competence and reading strategies: A comparison of first- and second-language oral reading errors. *Language Learning*, 30, 101-116.
- Davine, T. G. (1986).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from theory to practice*. Boston: Allyn & Bacon, Inc.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UP.
- Freedle, R. & Kostin, I. (1991). *The prediction of SAT reading comprehension item difficulty for expository prose passages*. PRPC Final Report P/J 969-60.

- Princeton, N.J.: ETS.
- Freedle, R. & Kostin, I. (1993). *The prediction of TOEFL comprehension item difficulty for expository prose passages for three item types: main ideas, inferences, and supporting idea items*. Research Report-93-13. Princeton, N.J.: ETS.
- Freedle, R. & Kostin, I. (1996). *The prediction of TOEFL listening comprehension item difficulty for minitalk passages: Implications for construct validity*. ETS-RR-96-29. Princeton, N.J.: ETS.
- Garvie, E. (1990). *Story as vehicl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Grabe, W. (1991). Current development in second language reading research. *TESOL Quarterly*, 25 , 375-406.
- Gough, P. B. (1972). One second of reading In F. J. Kavanagh & G. Mattingly (Eds.), *Language by ear and by eye* (pp. 331-358). Cambridge, MA: MIT Press.
- Henning, G. (1991). *A study of the effects of variation of short-term memory load, reading response length, and processing hierarchy on TOEFL listening comprehension item performance*. ETS-RR-90-18. Princeton, N.J.: ETS.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 Holmes 1972.
- Hudson, T. (1982). The effects of induced schemata on the "short circuit" in L2 reading: Non-decoding factors in L2 reading performance. *Language Learning*, 32(1), 1-31.
- Jensen, C. & Hansen, C. (1995). The effect of prior knowledge on EAP listening test performance. *Language Testing*, 12 , 99-119.
- Kant, I. (1963). *Critique of pure reason*. (N. K. Smith, Trans.). London: Macmillan.
- Knight, S. L., Padron, Y. N., & Waxman, H. G. (1985). The cognitive reading strategies of ESL students. *TESOL Quarterly*, 19 , 789-792.
- Laufer, B. & Sim, D. D. (1985). Measuring and explaining the reading threshold needed for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texts. *Foreign Language Annals*, 18 , 405-411.
- Lee, J. & Schallert, D. L. (1997).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2 language proficiency and L1 reading ability to L2 reading performance: A test of the threshold hypothesis in an EFL context. *TESOL Quarterly*, 31(4), 713-739.
- Markham, P. & Latham, M. (1987). The influence of religion-specific background knowledge o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of adult second-language students. *Language Learning*, 37 , 157-170.
- Mueller, G. (1980). Visual contextual cues and listening comprehension: An experimen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4 , 335-340.
- Nissan, S. DeVincenzi, F. & Tang, K. L. (1996).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difficulty of dialogue items in TOEFL listening comprehension*

- ETS-RR-95-37. Princeton, N.J.: ETS.
- Sarig, G. (1987). High-level reading in the first and in the foreign language: Some comparative process data. In J. Devine, P. L. Carrell, & D. E. Eskey(Eds.), *Research in reading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p. 105-120). Washington, DC: TESOL.
- Scheuneman, J. & Gerritz, K. (1991). *Effects of prose complexity on achievement test item difficulty*. ETS-RR-91-43. Princeton, N.J.: ETS.
- Schulz, R. A. (1983). From word to meaning: Foreign Language reading instruction after the elementary cours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7, 127-134.
- Selkirk, E. O.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Song, M.-J. (2001). The Role of L2 Proficiency in L2 Reading: The Threshold Model Revisited. *English Teaching*, 56(1), 31-51.
- Stem, H. H. (1983),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Oxford: OUP.
- Urquhart, S. & Weir, C. (1998).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Process, product and practice*. Reading, MA: Addison Wesley Longman Limited.
- Yorio, C. A. (1971). Some sources of reading problems for foreign-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21(1), 107-115.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All

성 윤 미

인천시 서구 검암동 246 서인천고등학교

전화번호: 032-562-0012

Email: yseong@chol.com

Received in Nov., 2003

Reviewed in Dec.,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an., 2004

22. This morning Jim is out of his office for a meeting. If the meeting ends on time, he _____ back at 5 o'clock.

- ① was ② will be
③ would be ④ would have been

23. The young musician has suffered from serious disease for eight months. Although he has much difficulty in his working, his music is _____ as ever.

- ① more brilliant than ② as brilliant
③ the most brilliant ④ brilliant

24. During this business trip, Jim stayed a couple of days in North America. When he visited Seattle University, a big gymnasium _____.

- ① built ② was built
③ was being built ④ has been built

25. A fire broke out near the station at midday, and was extinguished before it spread out. If it had broken out late at night, a great part of the station _____ destroyed by it.

- ① would be ② would have
③ would have been ④ will be

* 문법 문제가 끝났습니다. 어휘 문제가 이어집니다.

☆ PART II 어휘 ☆

* 문맥상 밑줄 친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6. Yellowstone is famous for its rivers, lakes and hot springs.

- ① well known ② faithful
③ well liked ④ interesting

27. Henry hopes to be able to go to college next year.

- ① knows ② wants ③ needs ④ thinks

28. He is good at anything practical like repairing a washing machine.

- ① refitting ② fixing
③ building ④ cleaning

29. Last night I saw Jane disappear round the corner.

- ① vanish ② move
③ stop happening ④ change

30. The road to the Pike's Peak was completed in 1915.

- ① mixed ② finished ③ filled ④ ended

31. He took over the family business, raising peanuts.

- ① lifting ② roasting ③ growing ④ buying

32. The basic English class will meet on Mondays and Wednesdays from 4:00-6:00.

- ① beginning ② advanced
③ simple ④ intermediate

33. The risk of attack by a mountain lion was extremely small—about the same chance as being by lightning.

- ① accident ② luck ③ success ④ danger

34. You can easily take a local bus almost directly to my apartment.

- ① shortly ② soon
③ immediately ④ straight

35. Please fill in the application and mail it to us.

- ① complete ② close ③ feed ④ occupy

36. These books will be offered to the children in the kindergarten.

- ① taken ② shown ③ given ④ posed

37. The cheerleaders tried to make the people participate more willingly.

- ① have fun ② join in
③ divide up ④ play

38. To see 40 whales from the same place would be unusual.

- ① natural ② practical
③ common ④ extraordinary

39. When riding the bus, passengers should carry the exact fare, which is \$1.00 for the regular bus, and \$1.25 for the express bus.

- ① show ② freight ③ faster ④ messenger

40. We have now release versions 2.3 of *The Statistician* computer program, which include several new features.

- ① special functions ② main movies
③ facial characteristics ④ regular columns

41. Zond Systems Inc. is building a \$100 million wind farm called the Mesa Wind Project, which will generate 30 megawatts of electricity.

- ① prepare ② dispose ③ project ④ produce

42. If you do not have our catalog, just send me a list of your current needs.

- ① flowing ② present ③ running ④ constant

43. With these developments, a new field has come into being the study of planets orbiting far-off stars.

- ① traveling in a straight path
② circling around a star

- ③ moving at a rapid speed
④ revolving on its axis
44. Women can achieve in areas where men traditionally have achieved.
① succeed ② get ③ fight ④ lead
45. Jim's attitude suggested that he regarded me as an upstart, which made me upset.
① aptitude ② manner ③ attire ④ suggestion
46. The word 'love' was represented by a small heart.
① symbolized ② presented
③ organized ④ delegated
47. She is a harsh mother and imposed severe discipline.
① simple ② perfect ③ gloomy ④ strict
48. He always sees the whole, not the various lines which comprise it.
① control ② constitute
③ conduct ④ complete
49. Yet the fault lies not in him but in the system.
① criticism ② prejudice ③ defect ④ factor
50. You must be ready to endure hardship and even death.
① predict ② recognize
③ cease ④ bear

수 고 하 셴 습 니 다
Thank you very much!!!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도 제출해 주십시오.)

부록 II : 음성영어지식(억양) 평가

Part III Suprasegmentals (Intonation을 중심으로)

_____ 고등학교 3 학년 _____ 반 _____ 번 성명 _____ 관리번호

* 세 번째 영역은 억양측정입니다. 실험자가 녹음할 수 있도록 다음에 주어진 글을 큰소리로 읽어주세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1. Good morning, Mr. Smith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 What a beautiful day!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 How did he do it?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Pass me the napkin holder.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The situation is unacceptable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 You can say it in writing or orally.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 If you wish, I'll serve you now.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8.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9. I usually get up early. It takes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me about half an hour to brush my teeth, shave, and get ready to leave the house. On Tuesdays and Thursdays I sometimes take a swim before breakfast. Do you like to swim? There's nothing else like it to start the day off right.